그림이 된 신화·예술이 된 IT … 창작세계에 빠져든다

볼거리·즐길거리 다채

문화창조원·정보원 새 콘텐츠 선보여
글로벌 석학 특별 강연도 이틀간 열려
로봇이 고려대장경 쓰는 과정 연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2관의 전시 '플라스틱 신화들'. 이 전시는 셀(Cell) 모양의 구조물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새로운 예술적 시각으로 보여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 공식개관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를 선보인다. 지난 9월4일 부분개관에 이어 이번 공식개관에서는 문화창조원, 정보원 등 전시·창조공간에서 예술과 기술, 첨단미디어와 영상 등 문화전당이 지향하는 새로운 창작세계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아시아 신화·설화를 회화로 풀어낸 작품과 국제적인 석학들의 강연도 진행된다.

◇**예술로 해석한 아시아**=민주평화교류원 1층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민담과 설화 등 옛 이야기가 한국 그림 작가들의 손을 거쳐 디지털 그림책으로 선보이는 '2015 아시아 스토리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국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등 아시아 3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협의체(AASN·이하 협의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아시아 창작공간(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국제행사가 진행된다. 이들이 마련한 공동기획 전시회에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씨실과 날실'을 주제로 아시아의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한 모습을 예술 언어로 표현한다.

글로벌 석학 특별강연도 25~26일 문화전당에서 열린다. 특강에는 '컬처코드'의 저자인 클로테르 라파이유 아키타이프 디스커버리 월드와이드 회장 등이 참석한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탐구를 주제로 4일 동안 전시·워크숍·강연 등이 이어지는 'ACT페스티벌-테크토닉스(Tektonics)' 행사도 함께 열린다.

◇**예술의 경계 허무는 창작세계**=문화창조원의 대표적인 공간인 복합1관(별칭 The Ground)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디어 작가 료지 이케다가 창작한 '테스트 패턴 no.8'(Test Pattern no.8)이 전시된다. 이 전시는 문자로 이뤄진 텍스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0과 1, 이진수로 변환하여 바코드 형태의 패턴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같은 장소에서 '볼트-이미지, 지각, 빛의 연금술'(The Vault-Image, perception, the alchemy of light)도 선보인다. 참여작가들은 디지털을 활용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디지털 이미지들의 향연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창조원 콘텐츠 가운데 두드러진 작품은 '아트컴(ART+COM)' 팀의 'RGBCMY Kinetic'이다. 기계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원형디스크들의 움직임과 조명을 이용, 새로운 예술세계를 선보인다.

문화창조원 복합 2관의 '상상원 아시아-플라스틱 신화들'(Plastic Myths)도 주목받는 콘텐츠다. 이 전시는 신화를 '과거'의 것으로만 판단하는 관습을 넘어, '현재' 아시아의 신화들과 변화하는 '미래'를 풀어냈다. 아시아인들이 아닌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의 시선으로 아시아의 미학을 재해석한다.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융합미디어랩과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마련한 '21C 대장경 프로젝트'는 고려대장경을 로봇이 다시쓰는 재창작 과정을 보여준다. '강영민' 작 '카페 오브 프로젝트-무등산 편'은 직접 등반한 무등산을 테마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관련 13개 아시아 문화예술전문 아카이브를 전시하고 열람·체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시, 비디오 아트, 실험영화, 아시아의 사진, 퍼포먼스 아트, 공연예술, 소리와 음악, 디자인, 근현대 건축, 이주, 도시, 전자상가, 크리에이터 등이 선보인다. 정보원에서는 아시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음악·영상을 검색하고 감상하는 체험 공간도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팀 에첼스 '마지막 탐험', 커뮤니티 윈도우 '소리의 숲'

예술극장도 시즌 프로그램 풍성

팀 에첼스 작 '더티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은 지난 9월 개관 페스티벌 이후 시즌 프로그램(2015~2016)을 진행중이다. 시즌 프로그램은 전 세계 공연계에 깊은 인상을 줬던 프로그램으 초청하는 '아워 마스터'와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선보이는 '커뮤니티 윈도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즌 첫 프로그램은 '아워 마스터'를 통해 지난 10월 공개된 '해변의 아인슈타인'이었다.

이번 공식 개관에 맞춰 '아워 마스터' 두 번째 작가인 팀 에첼스의 작품들이 선보이며 '커뮤니티 윈도우' 선정작도 처음 관객들을 만난다.

팀 에첼스의 작품은 두 편의 공연과 두 편의 전시를 아우른다.

27~28일 오후 7시 예술극장 1에서 공연되는 '마지막 탐험'은 동화, 공상 과학 소설, 어린이 그림책, 서사시, 신화를 혼합한 듯한 작품이다. 퍼포머들이 직접 만든 거대한 바다 괴물, 유령, 전투왕 등의 의상을 입은 채 행렬을 하고 강렬한 사운드는 군중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레바논 출신 아티스트 타렉 아투이의 일레트로닉 음악과 뮤지션들의 라이브 악기를 함께 사용한다.

예술극장 아틀리에 1에서 공연되는 '더티워크'(28일 오후 4시·29일 오후 2시)는 두 명의 퍼포머가 출연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는 작품이다.

극장 오픈홀에서 선보이는 전시 '엠티스테이지'는 팀 에첼스가 지금도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극장, 술집, 학교, 교회 강당, 노동자 클럽 등 전 세계의 텅 빈 무대를 기록하는 작업이다.

또 예술극장 입구와 극장 로비에는 '이야기의 끝' 등 네온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극장 입구에 전시된 네온 작품은 내년 5월 31일까지 만날 수 있다.

'커뮤니티 윈도우'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은 '아트웨이 숨'의 '소리의 숲'(12월5일~6일)이다. 산에 갔다 정신을 잃은 한 사람이 9일 동안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고, 사라진 9일 동안의 이야기를 추적하는 작품이다.

이어 12~13일에는 '검은 밤'의 '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에겐 우산이 있지'가 공연된다. 광주 일대의 기억 속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음악극으로 공간에서 마주한 이야기들이 과거와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5개원 구성 … 문화교류·전시·공연 복합기관

문화전당은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교류와 전시, 공연, 유통이 이뤄지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이다.

전체 부지면적 13만4815㎡, 총넓이 16만1천237㎡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문화전당은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지보상비를 포함해 건립비로 7030여억원이 들었다.

문화정보원은 지하 2층~지하4층에 연면적 2만1386㎡로 지어졌으며,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이다.

문화창조원은 예술가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교류하는 공간이다. 6개의 복합전시관을 두고 있다. 총 전시면적은 9352㎡ 규모다.

아시아예술극장은 공연예술의 창작·제작 허브를 지향한다. 극장1은 좌석과 무대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극장으로 1120석 규모다. 극장2는 512석 규모의 고정형 극장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80년 5월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운 역사적 현장을 보존해 만들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예술적인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5·1민주평화기념관은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5·18 당시 열흘간의 이야기를 기승전결이라는 서사구조로 연결해 문화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문화원은 놀이를 통해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체험관과 아시아와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어린이극장, 어린이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